

전남 지역문제 해결 민관 협력 강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 협약 기관·단체 160여곳 참여 지난해 9월 출범 27개 과제 추진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가운데)가 지난 15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열린 '전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식' 행사에서 서명을 마치고 응원타이를 들어 올리고 있다.

전남지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함께하는 전남' 실현을 위해 지역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김한중 전남도시장,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박민서 목포대 총장, 윤난실 대동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 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실행 협약을 했다.

전남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급격한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 등 예측 불가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기존 관 주도해결 방식이 아닌, 도민 주도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기구다. 160여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이 자원과 자금 등을 지원한다.

협약식은 플랫폼 활동 경과보고, 올해 운영계획과 의제 소개, 공동 실천선언 및 협약, 참여·협력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남도 공식 유튜브인 전남오픈튜브와 줌(화상회의앱)을 통해 생중

계하는 등 비대면 방식이 동시 진행됐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출범 이후, '해양 쓰레기 정화 및 캠페인', '어르신 전통시장 장보기 대행 서비스' 등 27개 협업과제를 추진했다. 지난 2월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전남 사회혁신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전 도민 대상으

로 지역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폐지 줍는 어르신 리어카 안전장치 제작 및 설치', '취약계층 가구 초인종 설치 지원' 등 18개 의제를 발굴했다. 문금주 부지사는 "도민이 다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과 실험을 계속하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에서 정보와 자원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도에서도 협업의제가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도록 환경 조성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식품부 선정 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336개소 전국 최다

컨설팅·홍보·판매 등 혜택

전남도는 농식품부에서 선정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가 336개소에 이르러 농촌 혁신을 이끌고 있다. 현재 전국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총 2020개로, 전남이 가장 많고 전북, 경북, 경기도가 뒤를 잇고 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2차 제조·가공, 3차 유통·판매, 체험관광 등과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최근 2년간 평균 4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린 경영체다.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민간전문가를 구성해 경영체의 기초 역량 및 산업 기반,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지역 사회와 자원의 연계·활용성 등을 평가하고, 농식품부가 최종 선정한다. 인증경영체로 선정되면 1대1 경영컨설팅, 홍보마케팅, 남도장타·홍소핑 등 온·오프라인 판매지원, 신제품 개발 등 융복합강화사업을 비롯해 용자금을 지원받는다.

전남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운영 활성화와 생산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체험활동이 중단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시설에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사업을 추진, 제품을 납품한 인증경영체들은 올 상반기에만 총 1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와함께 지난 5월 전남도가 운영하는 농축수산물 온라인소매몰 남도장터(<https://jmall.kr/>)에 전국 최초로 비식품 농어촌체험관광 상품을 입점시켜 1000만원의 매출을 이끌었다.

전남도는 올 연말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400개소까지 발굴 확대할 계획으로, 농가 소득 창출과 활력 증진을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유튜브 '귀농TIME' 전남 귀농귀어 기여 특특 귀농산어촌 분야 최고 채널 성장

전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센터가 귀농산어촌 희망자와의 소통 다양화를 위해 개설한 유튜브 채널 '귀농TIME'이 예비 귀농산어촌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귀농산어촌 현장 체험교육 등이 무기한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예비 귀농산어촌인들이 제 때 귀농산어촌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귀농TIME'을 개설했다.

귀농산어촌 분야 최고의 유튜브 채널로 성장

하고 있는 '귀농TIME' 콘텐츠 가운데 전남 우수 귀농인의 맞춤형 텃밭 관리 '농부의 정석'은 진땀뻘 땀 흘린 밭 등 예비 귀농산어촌인뿐만 아니라 정착 초기 귀농산어촌인 등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남으로 귀농한 청년의 귀농 정착스토리 '없어서 못판다! 밤호박 200평 하우스 2동 재배 수익공개' 등 전남 귀농산어촌인 사례 중심으로 소개하는 '귀농의 진실'은 편안하고 현장감 있는 구성으로 누적 조회 수와 구독자가 급증하고 있다.

'귀농TIME'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남 농업·농촌 현장 방문이나 정보 취득이 어려운 도시민에게 전남 실제 현장을 생동감 있게 보여줘 예비 귀농산어촌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 등이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남으로의 귀농·귀촌 인구가 3만3026가구 4만1861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전남이 귀농·귀어·귀촌 1번지로 자리잡는데 '귀농TIME'이 한몫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섬 주민 병원선에서 정신 건강 살핀다

전남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전남도가 오는 11월까지 10개 무의도서 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병원선과 연계해 찾아가는 정신·치매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동상담실은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국립나주병원), 전남광역치매센터(성가톨릭병원)의 전문 인력 2개 팀 10명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심리지원과 스트레스 측정, 우울 선별검사, 치매 조기 검진, 치매·우울증 예방교육 등을 한다. 검사 결과 우울증, 인지장애, 치매 등 소견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정신과 전문의와 1대1 상담을 하고, 지역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 협력병원과 연계해 전문적인 치료, 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16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9개 시·군

54개 섬 1640명을 검진했다. 이 가운데 120여 명이 치매·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등록돼 관찰 보건소에서 정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1일 진도 가사도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고흥 득량도·죽도를 찾아 상담실을 운영했다. 앞으로 7월 말 진도 대마도, 8월 고흥 연흥도, 여수 자봉도·소경도·대항간도, 10월 신안 우이도·자라도 등 10개 섬 1300여 명을 상담한다.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시·군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두 전남도 건강증진과장은 "의료접근성이 낮은 161개 무의도서 주민이 정신건강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병원선과 연계한 정신·치매 이동상담실 운영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축사 열 차단에 드론 활용 농가 지원

전남도가 올 여름철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 사업을 추진한다. 기상청은 오는 20일부터 고온 다습한 공기가 한반도 상공을 덮으면서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돔현상이 나타나 점점 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축사 지붕의 직사광선 노출에 의한 내부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 시범사업'을 추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및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손실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6억원으로 지난 1차 추경에 확보했다.

대상 농가는 각각 500만원 한도로 축사 지붕 면적당 8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남도는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은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 효용 개선제 1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60억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14억원 ▲가축 재해 대응 축사시설 현대화 10억원 등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소방, 하루 구조 75건, 구급 396건 출동

전남소방본부는 올 상반기 구조·구급 활동 실적 분석한 결과 구조 1만3677건, 구급 7만1365건을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급한 순간의 도민에게 하루 평균 구조 75건, 구급 396건의 소방 서비스를 한 셈이다. 올 상반기 구조 출동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7건(4%) 늘었으나 구조 인원은 29명(2%) 줄었다.

지난해 대비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증가에 따른 자연재난 출동 신고 건수는 늘었으나, 등산 인구 감소로 산악사고 구조 인원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

됐다. 출동 유형별로는 동물 포획이 2882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454건(17.9%), 화재출동 2369건(17.3%) 순이었다. 구급 출동은 지난해보다 7205건(11.2%)이 늘었고, 이송 인원 역시 1644명(4.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 등 구급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 유형별 구급출동은 질병 2만4107건(62%), 사고부상 8125건(21%), 교통사고 4679건(12%) 순이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